

방언과 예언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라

(사도행전 18:24-19:7)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 및 이고니온을 거쳐 에베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답하며 자신들이 받은 세례가 요한의 세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곧바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그들에게 실제로 임하셨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에 대한 구절의 해석 차이로 인해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이고 성령을 받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며 구원의 징표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방언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받은 이들에게는 영적 우월감을 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어떤 신앙의 형태든 우월감을 낳거나 성도를 분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가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는 시제와 '성령을 받는다'는 시제는 분리되지 않는 동시적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고전 12:3).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은 동의어이며 같은 구원 사건 안에서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3:2, 에베소서 1:13에서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방언이 처음 등장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

건을 보면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방언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똑똑히 알아들었습니다. 오순절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소통의 언어였습니다. 방언의 본질은 내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며 마음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며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사회에서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오해하고 공격하며 소리만 주고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다는 성도들이 서로를 왜곡하고 잘못 알아듣는 일이 빈번합니다. 방언은 마음을 닫은 이들의 마음을 열고 비판과 공격을 넘어 들리지 않던 말을 들리게 만드는 진정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특정 사람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방언과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점쟁이처럼 미래의 일을 미리 맞춰내는 예측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한자의 의미는 미리 예(豫) 자가 아니라 말길 예(預) 자를 사용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룩한 말씀을 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타인에게 전달하여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뛰어난 신학적 이론도 삶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세상의 지탄을 받을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는 방언과 예언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잘 보여줍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뛰어난 지식과 화려한 언변으로 바울보다 훨씬 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도 힘 있게 이기며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편지는 무게가 있으나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면 말이 시원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같은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아볼로를 시기하거나 자신의 사도적 권위로 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모두 주께서 주신 대로 성도들을 믿게 한 사역자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언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올바르게 연결해 주는 참된 방언의 삶이었습니다.

아볼로의 태도 역시 매우 성숙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아볼로에게 다시 고린도로 가달라고 여러 번 권유했습니다(고전 16:12). 하지만 아볼로는 본인의 방문이 아볼로파에게 힘을 실어주어 교회의 분열을 심화시킬까 봐 방문을 사양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인물이었음에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말씀으로 공동체의 균열을 막고 자신을 낮추는 아볼로의 태도가 바로 예언적 삶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남과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투고 시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이나 외모 및 실력을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타인이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각자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같기에 동일한 예수님께서 서로 충돌하거나 우열을 다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뛰어난 언어이며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할 기독교의 진정한 수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방언과 예언은 신비로운 개인적 체험에만 머무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던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바로 세우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대로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